

심판대 오른 '일본의 양심'

'태평양전쟁 한국인피해'공판 표정

1일 도쿄 지방재판소의 713호 법정에서 막을 올린 한국인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소송은 원고측 변호인단장인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의 말처럼 "일본의 양심이 심판받는 재판"처럼 간주됐기 때문인지 2시간여동안 시종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옛 일본군 군인, 군속, 종군위안부 및 유족으로 구성된 41명의 원고 중 3명의 원고가 대표증언을 하고, 원고측 변호인단이 소송제기 이유를 총론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원고대표로는 종군위안부로 '가네다 기미코', 옛 군인으로 박칠봉, 유족대표로 김종대(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회장)씨가 차례로 나서 일본의 강제동원에 의해 한 가정과 개인의 삶이 어떻게 파괴됐는가를 상세히 증언했다. 3명의 재판부와 일본정부측 변호인단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는 방청을 희망하는 재일동포와 일본 시민운동단체의 회원 수백명이 몰려와 추첨으로 방청권을 분배했다.

◇...이날 통역을 통해 증언한 3

명의 원고는 수십년간 간직해 온 '한'을 일본 법정에서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 것이 꿈처럼 생각되며 대단히 기쁘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했다.

'가네다 기미코'라는 일본 이들로 발언대에 나선 72살의 할머니는 17살 때에 공장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종군위안

은 도착한 날 밤 방 앞에 20~30명씩 줄을 서 대기하고 있는 군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술취한 군인이 쓴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자신도 저항하다가 군인이 휘두른 총검에 찔려 위생실에서 20일간 치료를 받은 뒤 '어린 몸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매일 당했다고 밝혔다.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 중국인 노동자가 주는 '하얀 가루'를 담배와 함께 피우다가 아편 중독

갔다가 2년 뒤 몸을 망쳐가지고 돌아왔다고 밝히고 일본인 지주가 다시 부친을 강제징용에 보내려고 해 자신이 대신 가겠다고 경찰서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그뒤 관동군 336부대의 보충마부대에서 군속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1944년 7월 현역병으로 징집돼 1945년 3월 남방전출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박씨는 당시 남방으로 가는 수송선에서 중대장급 이상의 장교에게는 공기를 넣은 고무튜브

보상거부행위를 비난했다. 그는 1941년 8월께 남양군도로 강제연행됐던 부친이 1944년 8월 귀국도중 배가 가라앉아 수장됐다는 말을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부친의 친구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까지 일본정부로부터 아무런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부친의 묘를 모시지 못하고 호적정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남매를 어렵게 키워온 모친도 이제 81살의 고령이 됐

다고 밝히고 전쟁기간중 일본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일본정부가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자의 일생을 말살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우리는 이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고들과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이 끝난 직후 인근의 변호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재판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재일동포들과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석해, 원고들이 입장할 때 박수로 환영해주었으며 간단한 다과를 마련해 이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도쿄=김효순 특파원>

잇단 야만폭로로 무거운 분위기 “보상거부는 천인공노할일” 분개

부로 끌려가 '몸이 썩어갔던 과정'을 거의 알아듣기 힘들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이 할머니는 한국인 여성 15명과 함께 일본인 남자의 안내로 서울역을 출발해 중국의 텐진역에 도착하니 군용 지프, 트럭, 마차가 1대씩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것을 타고 공장이 아니라 군인들이만 잔뜩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고 증언했다. 이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텐트로 칸막이한 작은 방들에 배치된 여성 일행 중 한사람

에 걸린 그는 갇은 고초를 겪은 끝에 귀국했으나 자궁이 찢어져나갈 듯이 아파 결국 자궁 전체를 들어냈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증언을 한 박칠봉씨는 부자가 차례로 강제연행돼 끌려갔던 과정을 밝히고 "일본인에 의해 끌려가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역사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부친이 일본인 지주의 미움을 사 홋카이도탄광으로 끌려

가 배급됐으나, 일반병사에게는 대나무를 잘라 줄로 연결한 것을 나눠줬다고 공개하고 '대나무 구멍동의'의 모조품을 갖고 나와 직접 몸에 걸쳐보이며 설명했다.

그는 칠할같은 밤에 연합군의 공습이 감행되곤 했는데, 배가 침몰할 경우 이 대나무를 걸치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 김종대씨는 희생자유족회의 대표라는 점을 의식한 듯 앞의 두 원고보다는 훨씬 강한 어조로 일본정부의